

첫 민간체육회장 선출 방식 놓고 진통

대한체육회 27일 예정된 이사회 9월로 연기 제주 선거인수 '200명 이상' 여부 의견 분분 법인격 없는 행정시체육회장 선거 여부 관심

첫 민간 지방(시도 및 시군구)체육회장 선출 방식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대한체육회가 8월 예정된 이사회를 9월로 연기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체육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당초 27일 이사회를 열어 시도체육회 규정 및 선거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9월 2일로 이사회 일정을 연기했다. 대한

체육회는 내부 사정을 이사회 연기 이유로 제시했지만 지방체육회장 선출 방식을 놓고 대한체육회와 시도체육회 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대의원 확대기구'에서 민간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최종안으로 마련했으며, 17개 시도별 선거인원(대의원)은 인구 수를 기준으로 >100만 미만=200명 이상 >100

만~200만 미만=300명 이상 >200만~500만 미만=400명 이상 >500만 이상=500명 이상으로 정했다. 또한 228개 시군구별 선거인원은 >5만 미만=50명 이상 >5만~10만 미만=100명 이상 >10만~30만 미만=150명 이상 >30만~200만 미만=200명 이상으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제주도체육회를 비롯해 시도체육회에서는 대의원 확보와 선거관리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대의원 수를 대폭 감소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체육회 관계자는 "대의원을 확대하면 자격 유무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17개 시도

체육회 모두 대의원 확대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제주도는 현재 대의원 50명만으로 선거를 치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 체육회장의 민간체육회장 선출도 기정사실화했지만 법인격이 없는 제주도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체육회장 선출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제주도체육회는 제주 행정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간회장 선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대한체육회에 전달했으며, 선출 여부는 이번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성준기자



귀일중이 전국근대5종선수권대회에서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사진=제주도근대5종연맹 제공

귀일중, 근대5종 전국선수권 6개 메달

근대3종 3종목 합계 938점 1위 남중부 근대2종 단체전은 2위

귀일중학교가 지난 8월 19일부터 24일까지 경북 문경시 및 국민체육부대에서 개최된 제38회 전국근대5종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포함해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귀일중(김윤서·윤민중·이지호)은 남자중등부 근대3종 릴레이 경기에서 수영 종목 261점으로 6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주 종목인 레이저런(사격·육상) 종목에서 1위로 올라서며 3종목 합계 938점을 획득해 라이벌 부산제중(909점)을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남자중등부 근대3종 개인전과 단체

전에 출전한 김윤서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강원 김한성(886점)과 부산 손정욱(881점)에 이어 3위에 올랐다. 귀일중은 단체전(윤민중·김윤서·이지호·문지성)에서도 서울제중(3326점)에 이어 3306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남자중등부 근대2종에 출전한 귀일중(문형석·강지윤·성수훈·이현선)은 1566점으로 단체 2위에 올랐다. 여중부 근대2종 개인전에서는 문수인이 373점으로 2위, 허다은이 352점으로 3위를 기록했다. 귀일중 근대5종팀은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등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7개, 동메달 7개를 합쳐 총 19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올해 모든 대회를 마감했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벤티호 9월 A매치 '안정·변화' 병행

A매치 소집자 26명 선발 김신욱·이동경 첫 발탁 6명 추가 진입·5명 제외

파울루 벤티호(50) 축구대표팀 감독이 2022년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을 본격화하는 9월 A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 대표팀 소집에서 '안정'을 바탕으로 소속의 '변화'를 선택했다. 벤티호 감독은 26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9월 A매치에 나설 26명의 대표팀 소집 명단을 발표했다. 6월 A매치 때 소집 명단(25명)보다 1명이 증가한 가운데 작년 8월 출범한 벤티호에 처음 승선하는 선수인 장신 공격수 김신욱(상하하 선화)과 신예 미드필더 이동경(울산) 단 2명뿐이다. 2개월 전 이란, 호주와 평가전 때 소집 멤버 중에서는 수비수 김민재(부산)와 미드필더 주세종(아산), 이진현(포항), 손준호(전북), 이승우(엘라스베로나) 등 5명만 제외했다. 대신 새롭게 발탁한 김신욱, 이동경과 기존 벤티호에 차출된 적이 있는 이창용(보훈), 정우영(알사드), 권창훈(프라이부르크), 이강인(발렌시아) 6명이 빈자리를 메웠다. 6월 A매치 소집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도 목뼈 골절로 낙마했던 권창훈과 3월 A매치에 소집됐던 이강인은 각각 5개월여 만에 대표팀에 복귀했다. 대표팀의 '캡틴' 손흥민(토트넘)과

'벤티호의 황태자' 황희찬(보르도), 새로운 중원 사령관 후보로 떠오른 백승호(지로나), 황인범(벵쿠버), 수비수 김민재(바이징귀안) 등은 예상대로 벤티 감독의 호출을 받았다. 특히 벤티 감독은 골키퍼와 수비진에서는 큰 폭의 변화 없이 안정 기조를 유지했다. 주전 수문장인 김승규(울산)와 조현우(대구), 구성운(콘사도레 샤프로) 골키퍼 3명은 6월 A매치와 동일하다. 또 수비진도 오른쪽 풀백 김민재(부산)이 부상 여파로 소집 명단에서 빠졌을 뿐 나머지 8명은 변화가 없다. 중앙수비수 김민재와 김영권(감바오사카), 왼쪽 풀백 김진수(전북) 또는 홍철(수원), 오른쪽 풀백 이용(전북)이 포백 수비라인의 주축을 이룰 전망이다. 또 백업 수비수인 박지수(광저우)와 권경원(전북), 김태환(울산)은 이들의 뒤를 받친다. 미드필더진도 벤티 감독의 신임을 받는 해외파인 황희찬(잘츠부르크)과 정우영, 권창훈, 이창용, 백승호(지로나), 황인범(벵쿠버), 이재성(휴스턴 키), 나상호(FC도쿄) 등이 다시 부름을 받았다. 이번 대표팀 명단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장신 공격수 김신욱의 선발과 미드필더 기대주 이동경의 깜짝 발탁이다. 종전에 소집 때마다 공격수를 2명씩 뽑았던 벤티 감독은 다양한 공격 옵션을 위해 장신의 타깃형 스트라이커인 김신욱을 추가로 차출하며 변화를 줬다. 연합뉴스



고진영, CP 여자오픈 우승 고진영은 25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토라 마그나 골프클럽에서 막을 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캐나다 퍼시픽(CP) 여자오픈에서 우승한 뒤 트로피를 들고 미소하고 있다. 고진영은 최종합계 26연타파 262타를 기록해 시즌 4승, 통산 6승을 달성했다. 연합뉴스

제주삼다수 3대3 농구 챌린지 성황

U-15·U-18·OPEN부 경기 제주도체육회와 제주도농구협회(회장 한동헌)가 주최하고, 제주개발공사가 후원한 2019 제주 삼다수 3X3 바스켓볼 챌린지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25일 제주 탐동광장 제주 삼다수 3X3 특설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U-15부와 U-18부, OPEN부를 포함한 3개 종별에 걸쳐 제주도 최대의 농구 축제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현재 농구 해설위원으로 활동 중인 유지원 해설위원이 시루 행사에 이어 참가 학생과 3점 슛 경연을 벌여 불거리를 선사했다. 이날 U-15부의 결승전에서는 JBLC X팀이 JBLC 드래곤 팀을 17대 11로 제압했다. 높은 슛 성공률을 보인 강재혁 선수는 MVP에 해당하는 제주삼다수 대상을 차지했다. 이어 열린 U-18부 결승전에서는 3학년으로 구성된 도시락 먹으러 왔

어요 팀이 1학년으로 구성된 킹왕짱 팀을 20대 9로 누르고 우승했다. 도시락 먹으러 왔어요 팀은 강우혁 선수의 2점슛과 골밑 돌파로 킹왕짱 팀을 제압했으며, 강우혁 선수는 제주 삼다수 대상을 차지했다. OPEN부 결승에서는 부산에서 참여한 리고러 코리아가 리딩 농구교실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해 FIBA 3X3 제주 챌린지 출전권도 가져갔다. 리고러 코리아는 뛰어난 신체조건을 갖춘 임정호 선수의 내외곽에 걸친 활약에 힘입어 리딩 농구교실을 21대 17로 누르고 우승했다. 이번 대회를 주최한 한동헌 제주도농구협회장은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제주삼다수 3X3 바스켓볼 챌린지를 제주도 농구문화축제로 발전시키고 내년부터는 국제대회로 격상시켜 더 많은 팀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명실상부 최고의 3X3 대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표성준기자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이당 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11:50 한식의 마음(재)	6: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7: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여름이 부탁해(재) 9:40 무한리벨 샐러드 10:40 지구촌 뉴스 11:00 너의 노래를 들려줘(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모두 다 콩다! 8:3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9:30 930 MBC 뉴스 9:45 기쁜 좋은 날 10:45 웰컴2라이프(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아침 뉴스 7:50 모두 다 콩다! 8:35 수상한 정보 9:10 추은아침 10:10 SBS 뉴스 10:30 살맛 나는 오늘 11:00 우리끼리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7:30 뽀롱뽀롱 뽀로로 8:00 땀방울 유치원 1 9:30 원더볼즈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2:00 EBS 정오뉴스 12:10 건축탐구·집 14:55 꼬마버스 타요 15:10 로보카 폴리 15:55 출동! 슈퍼윙스 17:30 페파 피그 19:00 스파이더맨 21:30 한국기행
12:00 KBS 뉴스12 13:00 KBS 네트워크 특선 거북이 뉴스 13:50 우리말 겨우기(재) 14:40 가요무대(재) 16:00 시사간담 17:00 KBS 뉴스5 17:30 동물의 왕국	12:10 생생정보 스페셜 12:55 살맛나는 남자들(재) 14:00 KBS 뉴스라인 14:10 생활의 발견(재) 15:00 자동차공부채상 위키2 15:30 TV 유치원 16:00 무한리벨 샐러드(재) 17:00 다큐멘터리 3일(재)	12:00 12 MBC 뉴스 12:20 MBC 1318 13:20 헬로키키 신비한 자연교실(재)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MBC스포츠 현대모비스 초청 4개국 국제 농구 17:25 휴먼 다크 사람이 좋다 스페셜	12:00 SBS 12뉴스 12: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12:40 JIBS 뉴스 12:50 K트롯 서바이벌 골든 마이크(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점수! 무비월드(재) 17:00 SBS 오뉴스 17:45 JIBS 뉴스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김태희의 아침뉴스 7:30 김현정의 뉴스쇼 9:05 김태희가 제1인생입니다! 12:00 CBS나눔통신 12:05 찬양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생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15 시사저널 정판용입니다 21:35 라디오강단 22:05 백인영의 가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7 오늘 제주 19:40 보물섬 20:30 여름이 부탁해 21:00 KBS 뉴스 9 22:00 시사기획 창 22:55 오늘밤 김제동 23:35 스포츠 23:40 거리의 민찬	18:00 KBS 경제타임 18:30 2TV 생생정보 19:50 태양의 계절 20:30 글로벌24 20:55 덕화TV2 덕화다방 22:00 너의 노래를 들려줘 22:35 너의 노래를 들려줘 23:10 자식채집프로젝트 배정미	18:25 웃음주식회사 속임수다 19:30 MBC 뉴스데스크 20:55 웰컴2라이프 21:30 웰컴2라이프 22:05 다크에이 그 사람 23:05 PD수첩	18:00 영재발굴단(재) 19:00 변변한 국방 20:00 SBS 8 뉴스 20:35 JIBS 8 뉴스 20:55 본격연예 한밤 1부 21:30 본격연예 한밤 2부 22:40 리틀 포레스트 2부 22:40 리틀 포레스트 2부 23:20 불타는 청춘 1부 24:00 불타는 청춘 2부	7:00 KCTV 뉴스 8:30 인사이드 제주 9:00 KCTV 뉴스 9:30 김민아의 무비 N 시리즈 10:00 헬렌지 퀴즈쇼 12:10 UHD 특선 14:30 KCTV VOD 열매예고 15:00 헬렌지 퀴즈쇼 17:40 KCTV 시청자세상 19:00 KCTV 뉴스7 21:00 인사이드 제주 21:30 KCTV 종합뉴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KBS ☎ 064-740-7331 / MBC ☎ 064-740-2432 / JIBS ☎ 064-740-7800 / KCTV ☎ 064-741-7723 / 제주CBS ☎ 064-748-7400

오늘의 운세 27일

김홍상 지단(해티)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매사 자연의 이치, 순리에 따르면 일이 풀린다. 48년 이동하는 문제가 생기면 아직 시기가 아니니 좀 더 때를 기다려라. 60년 남편문제로 고민과 걱정이 몰려온다. 승진 또는 직업변동. 72년 마음 조절이 필요하다. 가족간 불화나 성격차이로 갈등. 84년 이상 만남이나 소개가 오니 얼굴에 신경을 써라.

37년 자녀와 충분한 대화로 의견조율이 필요하다. 49년 활동이 왕성하고 주례사나 강의를 부탁이 들어온다. 61년 강의나 교육분야에서는 인정을 받는다. 73년 평생학업을 통한 모임이나 동아리 모임을 통하여 직업으로 만들어도 좋다. 85년 아티스트, 비누공예, 초공예에서는 분주.

38년 서서히 회복되니 마음을 즐겁게 비워라. 50년 일이 진전이 있거나 해결의 기미가 보인다. 62년 시 작은 좋으나 마무리에 약하니 주어진 일 잘 마무리해야 한다. 74년 내주장이 강하면 상대가 꺼리니 부드러운 화술이 적합하다. 86년 직업에 관한 소식이니 취업을 하게 된다.

39년 명상이나 마음을 다스리는 하루가 되고 즐거운 행사에 참여한다. 51년 차광으로 인하여 고생을 하니 운전조심. 63년 손재주나 생활용품 분야 기쁨이 있고 시장상인에게는 마음이 바쁘다. 75년 가정에 우환이나 문상할 일이 생기니 안부전화 필요. 87년 적극적으로 긍정적 사고가 좋은 결과를 만든다.

40년 꼭 필요하지 않으면 행하지 마라. 구설 조심. 52년 투자나 제테크에 대해서는 정보나 수사사람과 상의하면 일이 풀려 나간다. 64년 인테리어업은 원만하고 계약이 증가한다. 76년 투자는 매도와 매수의 시기를 잘 선택하듯 문서 변화시 신중하라. 88년 많은 정보 파악이 절실하고 필요하다고 느낀다.

41년 내주장은 약하게 상대의 주장을 많이 경청하는 것이 좋다. 53년 들뜸을 하나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라. 65년 유혹 또는 지출이 증가하고 구매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77년 어떤 일을 행하던 경감감동은 금물. 뒷사람에게 공손하라. 89년 가까운 사람과 헤어지거나 취업이 되려다 회소가 된다.

42년 욕심이 분쟁의 소지로 남으니 나눔이 필요하고 상대를 배려하라. 54년 자녀의 문제로 상념이나 약속이 생긴다. 66년 예술, 예능, 언론분야, 광고분야에서 활동범위가 넓어진다. 78년 전문성 또는 직업적인 상사가 인정하고 승진 소식도 생긴다. 90년 소망하던 일이 풀리듯 하다 방해자가 생긴다.

43년 이사 또는 변동이 오기도 한다. 55년 가정에 불화가 오거나 이성친구가 다가오니 신중함을 따라야 한다. 67년 강의나 교육분야에서는 인정을 받는다. 73년 평생학업을 통한 모임이나 동아리 모임을 통하여 직업으로 만들어도 좋다. 85년 아티스트, 비누공예, 초공예에서는 분주.

44년 음식 체인점 마케팅분야에서는 활발하고 분주하다. 56년 처음에는 안되다 늦게 일이 해결되니 차분한 마음을 가져라. 68년 일한 만큼 결과가 오니 부지런하게 움직여라. 80년 변동 변화를 추구하거나 금전지출이 생긴다. 92년 진퇴양난의 입장이 오면 아랫사람과 상의하여 일을 해결하는게 좋다.

45년 신경이 예민하거나 시력저하 또는 두통이 오니 무리하지 말것. 57년 새롭게 일을 모색하거나 내일로 전환하고자 한다. 준비 필요. 69년 자신의 위치를 알고 행하면 매사 순탄해진다 준비하는 자가 성공한다. 81년 한가지 전문성을 갖도록 시도하라. 93년 초대를 받거나 내 역할을 떠낸 상대가 필요로 한다.

46년 손재가 있거나 분실수가 오니 중요한 물건은 보관을 잘할 것. 58년 직업이 없으면 정보활동과 주변 도움 요청이 필요하다. 70년 전문성 또는 한가지 분야로 승부하는 업종은 호전. 정보활동에 투자. 82년 충동적인 행동은 유익함보다 지출이 많다. 94년 건강상 또는 분실이 올 수 있다. 외출시 신중해야.

47년 정면승부보다는 융통성있는 우회전법이 필요한 날. 59년 자녀진로에 관한 소식 또는 문자와 관계된 소식을 접하게 된다. 71년 진퇴를 놓고 힘들어 한 자신과의 싸움에서 극복하라. 83년 취업 또는 직업을 갖게 되고 이성문제도 접한다. 95년 음주나 늦게 귀가는 불화나 다툼으로 이어진다.